

## 방사선 이용 ‘꿈의 암 치료기’ 수년내 도입

‘꿈의 암 치료기’로 알려진 양성자 암 치료기보다 효과가 수십배 뛰어난 방사선 암치료기가 수년 내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카본 빔 하이엘리티 방사선 치료기’라 불리는 이 암 치료장치는 일본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NIRS)가 개발해 99년부터 임상에 적용하고 있는 장비로, 국내엔 원자력의학원(구 원자력병원)이 일본 NIRS로부터 도입을 추진중이다.

원자력의학원에 따르면 NIRS가 ‘하이맥’이라 이름 붙인 이 장비는 기존의 양성자 암치료기처럼 양성자가속장치를 이용한다는 점은 같지만 치료효과는 최소 10배에서 최고 50배까지 더 우수하다는 것. 이 장비가 원자력의학원에 도입되면 일산 국립암센터의 양성자 암치료기와 함께 국내 암 치료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발이 완료돼 임상에 적용되고 있는 첨단 방사선 암치료 장비로는 뇌종양 치료에 쓰이는 초정밀 방사선 치료장치인 ‘감마나이프’와 뇌는 물론 전신에까지 확대해 적용할 수 있는 ‘사이버나이프’가 있다. 또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 암세포 파괴능력이 탁월하면서도 부작용은 미미해 ‘꿈의 암 치료장비’로 각광받고 있는 양성자 암 치료기가 있다.

감마나이프는 국립암센터 등 주요병원에 모두 4대가 도입돼 운용중이며 이보다 한단계 진보된 사이버나이프는 원자력의학원에 1대가 도입돼 지난 6월부터 운용중이다. 일반 방사선 치료기가 수십차례에 걸친 시술로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과 달리 감마나이프와 사이버나이프는 암세포 환부에만 정확히 조사(照査)하기 때문에 불과 몇 차례의 시술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양성자 암 치료기는 현재 일산 국립암센터가 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캐나다 MDS노르디온사로부터 장비를 도입키로 결정, 오는 2005년 가동을 목표로 설치공사를 진행중이다.

원자력의학원 방사선종양학과 조철구부장은 ‘하이맥은 장치가격이 3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초고가여서 현재 상품화를 위해 콤팩트화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라며 ‘이 작업에 원자력의학원팀도 참여키로 NIRS와 협의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이맥은 양성자치료기와 사이버나이프를 합쳐놓은 것으로 보면 된다’며 ‘3~4년뒤 상품화가 완료돼 500억원 정도로 가격이 하락하면 국내에 들여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